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12. 1.(목) 16:00
담당 부서 <총괄>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	책임자	과 장 이종혁 (044-202-4917)
		담당자	연구관 장영호 (044-202-4938)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

- 이음5G 해외 도입 사례 정보공유와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의 규제혁신으로 이음5G 이용 활성화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12월 1일(목)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21년) 이음5G(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음5G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이음5G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 서비스 확산’ 방침에 따라 이음5G 실증사업 지원 등 이음5G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사업 초기에는 로봇, 지능형공장 분야 수요가 다수였으나,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R&D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민·관의 밀접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번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음5G 사업자, 공공·민간 수요기관*, 유관·직할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5G 특화망 기반 융합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5G 특화망 확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사업자)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 (공공·민간 수요기관) 한국 전력, 해군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유엔젤 등

** (유관) KCA, NIA, NIPA, ETRI 등 / (직할)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이날 첫 번째 발제는 이음5G를 우리나라보다 2년 일찍 도입한 일본의 농업, 임업, 공장, 발전소, 공항·항만 등 12개 분야 실증 사례와 28GHz대역 구축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도쿄도립대학 및 NTT동일본중앙연구소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며, “동 기관들은 28GHz대역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없이 실시간 영상 전송을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망 고도화를 준비중에 있다”며 “일본에서 이와 같은 28GHz대역의 운용·구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인 규제개선과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였고, 이후 참석자들은 이음5G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정책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음5G 사업자와 공공·민간 수요기업은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장비 조기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비용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일 개최된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디지털 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서 ‘이음5G 활성화’ 과제로 반영한 사업용·공공용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고시 및 훈령*을 11월 29일 발령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고시 제2022-68호(‘22.11.29.,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과기정통부훈령 제217호(‘22.11.29.,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기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고시 및 훈령의 개정으로, 사업용 이음5G 이용자들은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들은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완화된 공급절차를 거치게 되어 맞춤형 5G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사업용(1→0.5개월)과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아울러 30년까지 약 1천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국내외 우수 구축 사례 공유, 규제개선 및 홍보의 적극추진 등으로 연말까지 30개소의 이음5G 주파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 기술, 실증사업 등의 총체적인 이음5G 활성화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 계획(안)

담당 부서 <총괄>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	책임자	팀 장	이종혁 (044-202-4917)
		담당자	연구관	장영호 (044-202-4938)
<공동>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마재욱 (044-202-6620)
		담당자	서기관	심주섭 (044-202-6625)



참고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 계획(안)

□ 추진 배경

- 일본의 이음5G 도입 사례와 규제혁신 과제인 이음5G 활성화*의 추진결과를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 제2회 규제혁신전략회의('22.11.9)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2-1 과제

주파수 대역	4.7GHz(100MHz폭)
이용지역	KT 우면연구센터(양재)
주요 서비스	로봇, 보안, 관제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검증



□ 회의개요

- (일시) '22.12.1.(목) 15:00 ~ 17:00
- (장소) 토즈 강남토즈타워점* 40인부스 회의실
-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길 24-4
- (참석자)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혁신네트워크팀, 통신정책기획과, RRA, CRMO 및 관련 사업자·기관 등

- ▶ <이음5G 사업자(14)>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씨엔에스, SK네트웍스서비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CJ올리브네트웍스, KTMOS북부, 세종텔레콤, 위즈코어, 뉴젠스, 합동참모본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유엔젤, 한국수력원자력
- ▶ <기관(7)> NIA, NIPA, KISA, KCA, ETRI, TTA, RAPA

- (주요내용) △ 이음5G 일본 사례, △ 이음5G 주파수공급 절차 간소화, △ 이음5G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2(02')	■ 행사 취지 및 순서 소개	전파자원관리팀장
15:02~15:07(05')	■ 인사말씀	전파정책국장
15:07~15:37(30')	■ (발제1) 일본의 이음5G 도입 사례	KCA
	■ (발제2) 이음5G 주파수공급 간소화	전파자원관리팀
15:37~16:57(80')	■ 토 론	참석자
16:57~17:00(03')	■ 마무리 말씀	전파정책국장